

「한국수산지」를 통해 본 1910년경 충남 서해안 지역 수산업에 관한 경제지리학적 고찰

조창연* · 김학태**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산지」를 통한 1910년경 충남의 수산업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30개의 포구가 있었으며, 이것들의 입지유형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I 유형은 중·소하천변에 위치한 포구, II유형은 금강본류 연안의 포구, III유형은 연안에서 외해에 접하고 있는 포구, IV유형은 만 내에 입지하는 포구, V유형은 연안 도서지역의 포구들이다. 어종은 도미, 삼치, 가오리, 조기, 갈치, 새우 등이며, 도미어업 근거지는 죽도 및 연도였으며, 조기어장은 전라도 칠산탄에서 충남연해 일대에 형성되었고, 갈치는 전 연안 각처에서 어획되었다. 제염업은 충남 전해안의 만입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 지역은 서천만, 웅천만, 오천만, 안면도, 태안, 당진지역 등이다. 특히 태안군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안염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하였다. 금강 연안은 어촌이 32곳 있었으며, 하류지역인 금강구는 뱃어의 중심어장이었다. 비인만 지역은 23곳의 어촌이 있었는데, 어종은 조기, 갈치, 도미, 송어, 가오리, 상어류, 멸치, 새우, 등을 어획하였다. 보령연해 지역은 33곳의 어촌이 입지하고 있었지만, 제염업이 성하여 어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천수만 지역은 28곳의 어촌, 태안반도 및 가로림만 연안에는 70여 곳의 어촌, 아산만 지역은 55곳의 어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 지역이 농업을 주로 행하였기 때문에 어업이나 간석지를 중심으로 어전어업 정도가 발달한 정도였다, 서해 도서 지역 중 안면도 남쪽 지역은 주룩망 어업이 가장 발달한 해역이었고, 금강 하구의 도서지역은 도미의 중심어장이었다.

주요어 : 한국수산지, 포구, 입지유형, 제염업, 어장, 수산업

1. 서론

수산업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어업근거지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관심과 연구가 적은 편이다(서찬기·박태화, 1984).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근해는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수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

여 수산업이 일찍부터 중요한 국민적 전통산업의 하나가 되어 왔다.

과거 수산업은 대내적으로는 역대왕조의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개항 이후 일본어민의 침탈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구한국정부를 협박·조정하여 한국의 연·근해어장을 일본인 통어자(通漁者)에게 개방하도록 강요하였다.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교사

그 결과, 개항기를 통해 일본 통어자들은 반적 반어(半賊半漁)의 불법행위 등으로 한국인의 어장과 생존권을 침탈하였다(최태호, 1995).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한국의 수산업을 식민지 수탈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각종의 수산관계법령 등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식민지 어민과 수산자원 등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각종 수산관계 기관 등을 설치하였고, 수산업 및 어촌과 관련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한국의 연해지역 및 도서 등을 조사하고, 수산업의 실태를 소개한 것이 『한국수산지』 1)이다.

일본 農商工部水産局에 의해 작성된 『한국수산지』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일제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식민지 수탈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전 연안 및 도서를 대상으로 수산업의 정확한 현황 등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실태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과거 수산업과 어촌에 관한 연구는 어촌의 입지, 기능에 대한 연구와 개발 전략적 측면에서 본 어촌연구, 어업구조 및 경영에 관한 연구, 경제·역사적 측면에서 본 어업 및 수산업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일기, 1988).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연옥·이숙임(1976)은 동해안의 축산어촌을 대상으로 어장, 어기, 어업경영구조 등 경제적 측면을 연구하였고, 서찬기·박태화(1984)는 장기반도의 어촌을 중심으로 어촌의 성립, 발전과정, 가옥구조 등을 분석하고 어민의 계층분화와 노동구조, 생산과 유통 등을 분석하여 어업경영의 특색을 파악하였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수산업과 어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도양(1969)은 세종실록 지리지

분석을 통한 15세기 조선의 수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한인수(1977)는 한말 연평도 근해의 조기어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는 조기잡이 활동과 관련된 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일기(1985)는 곰소만 일대의 어촌 연구에서 갯벌퇴적, 어로기구, 객주 이동 등을 연구하였고, 박구병(1975)은 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선사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어업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 김신웅(1978)의 우리나라 수산업 발달사에 관한 연구, 최태호(1995)의 일제 식민시대 수산업정책과 한국 수산업에 관한 연구 등 대부분이 地誌적인 연구와 경제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00여년전 충남 서해안 지역의 수산업 및 어업 실태를 파악하여 당시의 어업 실태 및 주민생활상 등을 경제지리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수산지』에 나타난 1910년 무렵 충남 서해안의 수운 특징과 입지유형을 분석하고, 당시의 포구들의 교류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충남해안의 어업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어류 및 어획고, 어류별 어업실태, 제염업 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1910년경 충남지역의 어촌의 분포 실태와 수산업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1910년경 충남 해안의 수산업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당시의 충남 서해안의 수운과 주요 어류 및 어획고, 제염업 등을 고찰하여 충남 지역의 어촌과 수산업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수산업에 관한 경제 및 역사지리학적 고찰은 당시의 수산업 현황과 발전상태 등을 파악하여 서해안 수산업 발전의 당위성 및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한국수산지』에 언급된 지역별 포구와 어촌

의 지명은 이후의 행정구역 변천을 추적하여 현재의 지명과 일치시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895년 발행의 1:50,000지형도와 1914년 측도한 1:50,000 지형도를 대조하여 활용하였다.

2. 『한국수산지』에 나타난 당시의 충청도 서해안 수운

1910년 무렵 충남의 호구는 152,685호, 인구 859,101인이었다(한국수산지 제3권, 1910). 이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호수는 극히 적었다. 당시 일본인은 1,986호에 6,115인이 강경, 공주, 논산, 그리고 경부선의 주변인 대전, 조치원 등지에 거주하였다.

충남지역은 호남선(1914년 개통), 장항선(1931년 개통) 등의 철도가 아직 착공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 행하여져 온 금강 및 연안지역의 수운이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금강은 하구로부터 대략 120km 되는 부강까지 비교적 수운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강에 접한 지역은 교역이 활발하였으며, 기타 아산만에 면한 연안 각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곡교천의 경우 조석간만을 이용하여 하류로부터 8~12km 구간은 소선의 운항이 있었고, 예산천의 경우도 약 12km에 걸쳐 작은 선박의 운항이 있었다.

충청남도 연안에서 기선이 취항한 곳은 아산만 안쪽의 둔포, 그리고 아산만의 남쪽에 면한 돈곶, 부리포, 한진, 태안과 서산의 가로림만 내의 고파도, 웅도, 태안반도 남서쪽 끝에 있는 안흥진, 천수만내의 수영, 멀리 해중에 떠 있는 어청도 등이

였다. 이중 어청도를 제외하면 모두 대두 등 기타 곡물을 반출하는 계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의 도래가 있었고,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나름대로 포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금강 중·하구역 및 연안지역의 주요 포구 현황 및 입지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그림 1).

1910년경 충남의 전체 포구는 30개이며, 이를 입지유형별로 나누면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입지유형 I의 특색은 중·소하천변에 위치하면서도 나름대로 수운이 발달한 지역으로 모두 감조구간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포구는 금강의 지류인 논산천변의 논산과 길산천변의 길산, 태안읍 백화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가로림만으로 유입되는 미내천(오늘날의 당진천),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예산천(삽교천)변의 돈곶리, 부리포와 그리고 아산만 상류의 깊숙한 갯골에 위치한 둔포 등이다.

입지유형 II는 금강본류 연안의 포구들로써, 가항종점인 상류의 부강에서 금강하구의 장항 사이에 위치한 규암, 강경, 입포, 용당 등이다. 입지유형 III은 연안에서 외해에 접하고 있는 포구로 성남리 즉 오늘날의 안흥항이 해당된다. 입지유형 IV는 만내에 입지하는 포구들로써 입지유형 I과 마찬가지로 조석을 이용하여 포구를 드나들었다. 대표적인 포구는 보령포의 대천리, 천수만의 수영, 웅암리, 성호리, 창촌리와 가로림만의 고파도, 웅도리, 북창, 상창, 하창, 아산만의 한진리, 백석포 등이다. 본 유형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연안의 특성상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지유형 V는 연안의 도서지역의 포구들로 안면도 남부의 원산도, 고대도, 장고도 및 기타 어청도와 녹도 등이 해당된다. 이들 도서들과 긴

표 1. 포구의 위치

| 연번 | 포구명 | 구 행정구역 | 현재 행정구역 | 입지 유형 | 연번 | 포구명 | 구 행정구역 | 현재 행정구역 | 입지 유형 |
|----|-----|--------------------|--------------|-------|----|-----|---------|--------------|-------|
| 1 | 부강 | 충북 |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 II | 16 | 북창 | 태안군 동일면 |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 IV |
| 2 | 공주 | 공주군 남부면 | 공주시 | II | 17 | 상창 | 태안군 동일면 |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 IV |
| 3 | 논산 | 은진군 화지면 | 논산시 | I | 18 | 하창 | 태안군 동일면 |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 IV |
| 4 | 강경 | 은진군 금포면 | 논산시 강경읍 | II | 19 | 해창 | 태안군 동일면 |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 I |
| 5 | 규암리 | 부여군 천을면 |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 II | 20 | 성남리 | 태안군 안흥면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 III |
| 6 | 입포 | 임천군 대동면 |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 II | 21 | 둔곶리 | 면천군 비방면 | 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 I |
| 7 | 길산포 | 서천군 남부면 |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 I | 22 | 부리포 | 면천군 이서면 | 당진군 우강면 강문리 | I |
| 8 | 용당 | 서천군 마길면 |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 II | 23 | 한진리 | 면천군 신북면 |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 IV |
| 9 | 대천리 | 보령군 목충면 | 보령시 대천동 | IV | 24 | 백석포 | 아산군 이북면 |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 IV |
| 10 | 수영 | 오천군 하북면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 IV | 25 | 둔포 | 아산군 삼북면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 I |
| 11 | 옹암리 | 오천군 하북면 |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 IV | 26 | 원산도 | 오천군 하남면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V |
| 12 | 성호리 | 결성군 현내면 |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 IV | 27 | 고대도 | 오천군 하서면 |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 V |
| 13 | 창촌리 | 서산군 화면면 | 서산시 부석면 창리 | IV | 28 | 장고도 | 오천군 하서면 |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 V |
| 14 | 고파도 | 서산군 문현면 태안군 북일면 |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 IV | 29 | 녹도 | 오천군 하서면 |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 V |
| 15 | 옹도리 | 서산군 지곡면 | 서산시 대신읍 옹도리 | IV | 30 | 어청도 | 오천군 하서면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 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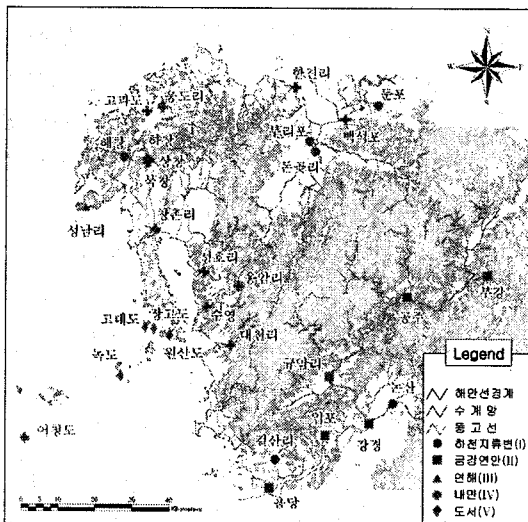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수산지에 나타난 충남 포구 위치 및 입지유형

자료 : 『한국수산지』
 입지유형 : 하천지류변(I), 금강연안(II), 연해(III), 내만(IV), 도서(V)

밀한 관계를 유지한 연안의 포구는 옹암리, 대천리, 강경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포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당시 충남지역의 포구와 수운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였다.

1) 금강 중하류 지역의 포구와 수운

금강 중·하류지역의 포구 및 수운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논산은 논산천의 논호교(論湖橋, 옛이름은 市津橋) 아래까지 조수의 영향을 받아 밀물을 이용하여 소선이 운항되어 강상운수의 이익이 많았던 포구였다. 논산천변 일대는 비옥한 평야지역이고, 수운이 편리하여 인근의 노성, 연산, 진영, 석성 등지의 물산의 집산지였다. 당시 논산은 충남 제1의 큰 장을 형성하였고, 쌀을 중심으로 한 집산물의 절반 이상이 논산천과 금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군산항으로 반출되었다. 이입품 또한 군산항과 인천항을 통하여 금강수로 및 논산천을 통하여 직접 소선에 실려 이입되는 것도 많았다.

금강의 좌안 및 금강과 논산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동안에 위치한 강경(江景, 江鏡)은 신포(薪浦), 금포(金浦)라 하였으며, 금강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집산지였다. 강경포구의 대형선박은 황산 아래에 정박하였으며, 금강수운의 중심지로 당시 충남에서 2~3위의 규모를 가지는 상업 중심지였다. 당시 군산과는 ‘입술과 이’처럼 양 지역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출품은 쌀 및 잡곡 등이었으며, 특히 쌀은 일본인 상인들에 의해 수합되어 군산항으로 보내지고, 군산항으로부터 다시 일본 또는 인천 등지로 보내졌다. 잡곡은 한국인 상인들이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주로 고군산군도, 나주군도 및 제주도 등지로 보내졌다. 이입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염이었으며, 주로 태안 및 나주산이다. 당시 소금 판매지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은진군(강경)은 물론, 용안, 임천, 정산, 부여, 석성 등지에 이르렀고, 또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간장제조 공장에 까지 공급되었다.

금강유역의 주요 기항지는 규암리, 입포리, 길

산포 등이 있었다. 규암은 유명한 나무로 강경~부강 간을 운항하는 발동기선의 기항지였다. 입포는 과거 이름난 나무터였고, 수로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여 금강의 상하를 왕래하는 선박의 주요 기항지였다. 금강의 지류인 길산천에 위치하는 길산포는 만조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길산장까지 작은 배가 운항 되면서 발달한 포구였다.

이밖에 용당(龍堂, 龍塘)은 길산장에서 모아진 농산물을 길산천과 금강의 수로를 따라 군산으로 반출되는 주요 나무였다. 본 나무는 군산의 맞은편에 있는 선착장이었으며, 서천읍을 경유하여 홍산, 남포, 보령 등의 연안 읍과 홍산읍을 거쳐 부여군의 규암리 등에 이르는 요충지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여객이 항상 끊이지 않았으며 군산과의 왕복이 빈번하였다.

2) 충남 연해지역의 포구와 수운

대천리는 보령포 내의 대천 하구에서 약간 위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선박의 출입 및 정박이 편리하여 군산 및 기타 제항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은 농업을 주로 하였으나, 일본인 거주지에서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 점차 번성하여 소유이 되어가고 있었다.

천수만 오천오(鰲川澳)의 광천하구에 위치한 용암리는 당시 서해안에서 교역량이 많은 포구의 하나였다. 특히 결성군에 속하는 광천시장은 깻골이 잘 발달되어 간조시에도 소형배의 왕래가 가능하여 주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 본 시장은 당시 선박의 출입이 많아서 주막이 20여호,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이 6~7호, 객주업을 영위하는 집이 1호가 있었다.

성호리는 결성만의 북측 중앙에 위치한 결성군 제1의 나무 겹 포구였다. 본 포구는 상업항으로써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였고, 주로 수산물 및 먼

포류가 유입되었다. 창촌리 포구는 그 위치 또한 해운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 주민들이 주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가로림만의 중앙에 있는 고파도는 동쪽에 갯골이 있어 간조 시에도 배의 정박이 용이하여, 서산군 및 태안군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농작물이 본 포구를 통하여 인천 등지로 반출되었다. 당시 농작물의 출하시기가 되면 인천에서 천엽환 외 3척이 입항을 하였고, 1일과 6일에는 소기선이 기항하였다. 가로림만의 북안에 위치한 응도리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인천과의 사이에 기선이 왕복하였는데, 배의 정박지는 섬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태안군 가로림만 연안의 소하천이 유입되는 지역은 평소 물의 양이 극히 적었지만, 유역 깊숙이 조류의 영향을 받아, 하천 상류쪽으로 1~2km를 작은 배가 통행하여 태안군·읍 인근 일대의 물자 교역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에는 과거 세곡운송과 관련된 운하의 개착으로 생긴 북창, 하창, 상창 등의 지명이 있는 곳과 해창 등지는 상선의 출입이 있었다.

성남리와 성동리 포구는 오늘날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의 안흥항으로 안흥반도의 끝에 위치하였다. 만은 서쪽에 면하여 입구가 넓지 않았고, 수심 또한 얇았으며 그 전면에는 신진도가 놓여 있어 그 사이의 수로는 좋은 정박지를 형성하였다. 본 수로는 간조시에도 수심이 2~5m를 유지하여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특히 안흥반도는 지리적으로 멀리 바다를 향하여 돌출하여 있어 충남 연안 항로의 요충지로 통선의 피박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리포, 한진 및 돈곶리는 인천과의 사이를 왕복하는 기선의 기항지였으며, 당시 총 4척이 운항하였다. 한진리는 아산만에 면한 포구였으며, 부리포의 북쪽에 위치하였고 풍랑을 피하기 좋은

위치였다. 부리포는 삼교천과 곡교천이 합류하는 지역의 서쪽 연안에 위치한 포구로 돈곶리 포구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본 포구는 주변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의 반출 포구여서 인천으로 기선이 왕래하였다. 돈곶리 포구는 아산만 안쪽 삼교천변에 위치하여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여 선박을 정박하기에 편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쪽 헤드랜드 부근에 정박지가 있어 인천과 왕복하는 기선의 정박지였다.

이밖에 아산만의 상류에 해당하는 백석포 및 둔포는 상선이 많았고 또 인천을 기점으로 연안을 항행하는 기선의 기항지였다. 백석포는 광덕강에 면한 포구로 간조시에도 2~4심3) 가량의 수심이 유지되어 기선이 정박하였다. 본 포구는 쌀의 반출지로서 수확기에 선박이 성황을 이루었다. 둔포는 간조시 간석지가 넓게 노출되었지만, 쌀, 소 등의 반출 포구여서 선박의 왕래가 많았다.

3) 충남 도서지역의 포구

『한국수산지』에 언급된 충남의 도서지역 포구는 원산도의 저두, 고대도, 장고도, 녹도, 어청도 등이 있었다. 원산도의 저두에는 상선이 드나들어 각지로 다니며 상업을 행하는 상인들이 있었고, 고대도에서는 생활필수품을 결성군에 속한 광천시 또는 보령군의 대천시에서 공급받았으며 이 곳을 오가는 상선이 1척 있었다.

장고도에는 선운업을 행하는 가구가 2호 있었으며, 주요 운항지역은 광천시장과 대천시장으로 한번에 14~15인 정도가 왕래하였다. 특히 장고도와 광천 간에 소형의 범선 2척이 한달에 2회 왕래하였다. 녹도는 광천 및 대천시장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였는데, 이들 두 지역과 해상교통이 매우 빈번하였다. 특히 본 섬은 광천까지 거리가 멀었으나 조류를 이용하여 빨리 운항할 수 있

어서 생필품을 얻기가 대단히 편리하였다. 그러나 항로에 익숙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항로였다. 어청도는 해상교통이 우편선 외에 군산과 인천으로 운항하는 기선이 왕래하였다. 그러나 왕래 빈도가 적었고, 우편소는 인천 우편국 관할로 월 3회 왕복하였다. 어청도는 곡물을 주로 장경, 또는 광천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섬 주민 중 어류를 위의 두 시장에 내다 팔고 미곡을 구입하여 오는 사람이 많았다. 섬 주민은 어획물에 그치지 않고 일본인 어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것을 시장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3. 1910년경 충남 서해안 지역의 수산업

1) 충남지역의 주요 어류별 어류실태

『한국수산지』에 나타난 수산물은 해수류(海獸類) 6종류, 어류 60종류, 패류 19종류, 조류(藻類) 9종류, 기타 10종류로 총 104종류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 주요 수산물의 명칭을 오늘날과 대비하여 연간 어획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충남 연해에서 어획된 주 어종은 도미, 삼치, 가오리, 조기, 갈치, 새우 등 수중에 불과하였다(표 3). 도미어업의 근거지는 죽도 및 연도였는데, 두개의 섬에 모인 선박은 어선 800여척, 일본 염절선 120여척, 출매선 500여척에 달하여 우리나라 연해 중 제일의 어장이었다. 삼치어장은 서해에서 가장 양호한 어장의 하나였지만 대부분 일본인 어부들에 의하여 행하여 졌으며, 가오리는 한국인 어부들이 많이 잡았다. 조기어장은 전라도 칠산탄에서 충남연해 일대에 형성이 되었다.

갈치는 전 연안 각처에서 어획되었는데, 일본

인들은 안강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목망 및 중선을 주로 사용하였다. 상어는 여러 종류가 연해 각처에 서식하였으나 한국인 어부들이 어획하는 것은 매우 적었고, 일본인 어업자들이 독점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농어는 연안 도처의 하구 또는 만내에서 어획되었는데, 특히 금강구가 가장 유명한 어장이었다.

기타 충남해역에서는 복어, 준치, 달강어, 민어, 흑도미, 가자미, 넙치, 참새대, 송어, 멸치, 공치, 칠성장어, 뱀장어, 방어, 뱀뱀이, 낙지, 오징어, 해삼, 새우, 뱀어 등의 어획도 적지 않았다. 복어는 전 연안 도처에서 어획되었으며, 일본 어부들이 많이 어획하지 않아 한인 어부에 의한 어획이 많아서 충남 연해어업의 중요 어종이라 할 수 있었다. 멸치의 어획이 가장 많은 어장은 어청도이고, 공치는 외연도 연안에서 많이 어획되었으며, 인천을 경유하여 서울의 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 붕장어는 연안도처에 서식하였고, 크기가 매우 큰 것도 있었으며, 주 어장은 안면도의 남단에서 금강구에 이르는 사이이다. 그러나 가의도 이북의 연해에서는 인천을 근거지로 한 일본예송어선이 도래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우는 금강구, 보령만구, 남포만구, 오천오, 천수해만, 백사수도 부근을 주어장으로 하였으며, 궁선으로 많이 잡았다. 뱀뱀이는 특히 천수만에서 많이 어획되었다.

패류는 백합(蛤), 바지락개랑조개(蜃), 죽합(蠔), 홍합, 전복, 굴 등이 있었으나, 백합, 바지락개랑조개, 죽합 외에는 그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주요 해조류는 미역, 가사리, 김, 우뚝가사리 등이 있었다. 이 중 생산이 많은 것은 미역이었으나, 섬지역 외에 육지 연안에 저생하는 것이 적어 그 생산량은 적었다. 이상에 언급된 어류의 주 어장을 지도화하면(그림 2)와 같다.

표 2. 한국수산지의 어류 및 연간어획고

| 한자(일본명칭) | 한국명칭 | 어획고(원) | 순위 | 한자(일본명칭) | 한국명칭 | 어획고(원) | 순위 |
|----------|------------|---------|----|----------|---------|---------|----|
| 경(鯨) | 고래 | 450,000 | 6 | 첩(鰈) | 광어, 넙치 | | |
| 명태(明太) | 명태 | 857,700 | 1 | 침(鱻) | 공미리 | 29,000 | 33 |
| 석수어(石首魚) | 조기 | 674,100 | 4 | 치(鰻) | 숭어 | | |
| 조(鯛) | 도미 | 481,500 | 5 | 포(鮑) | 생복 | 105,000 | 15 |
| 은(鰹) | 멸치 | 830,000 | 2 | 위어(鰻魚) | 줍어 | | |
| 춘(鱒) | 망어(亡魚), 삼치 | 293,300 | 7 | 비목어(比目魚) | 넙치 | | |
| 설(鱒) | 대구어 | 212,000 | 9 | 하돈(河豚) | 복어(복) | | |
| 연(鰺) | 청어 | 250,000 | 8 | 리(鯉) | 잉어 | | |
| 면(鰺) | 민어 | 41,200 | 28 | 부(鮒) | 붕어 | | |
| 사(鱒) | 방어 | 101,000 | 16 | 하(鰕) | 새우 | 775,220 | 3 |
| 청(鯖) | 고등어 | 112,000 | 14 | 사어(沙魚) | 망둥어 | 5,000 | 37 |
| 대도어(大刀魚) | 갈치 | 154,000 | 11 | 해서(海鼠) | 해삼 | 76,000 | 21 |
| 상(鰲) | 상어 | 98,600 | 17 | 모려(牡蠣) | 굴 | 87,500 | 19 |
| 분(鱸) | 가오리 | 128,000 | 12 | 정(鯉) | 죽합 | | |
| 로(鱸) | 농어 | 97,900 | 18 | 의(鱸) | 소라 | | |
| 적어(赤魚) | 눈볼대, 강성어 | 56,700 | 23 | 합(蛤) | 백합(白蛤) | | |
| 류(鰻) | 숭어 | 44,000 | 26 | 리(鰻) | 바지락개랑조개 | | |
| 시(鱒) | 준치 | 21,600 | 35 | 영나(榮螺) | 참고둥 | | |
| 방(魴) | 병어 | 43,000 | 27 | 해(蟹) | 게 | | |
| 예(鱒) | 붕장어 | 46,500 | 25 | 소(鰯) | 낙지 | 21,000 | 36 |
| 만(鰻) | 뱀장어 | 33,000 | 30 | 오적(烏賊) | 오징어 | 25,000 | 34 |
| 해만(海鰻) | 바다뱀장어 | 35,000 | 29 | 이패(貽貝) | 홍합 | 32,000 | 32 |
| 화어(火魚) | 달강어(達江魚) | 55,000 | 24 | 약포(若布) | 미역 | 62,000 | 22 |
| 백어(白魚) | 뱅어 | 5,000 | 37 | 해태(海苔) | 김 | 166,000 | 10 |
| 규(鮭) | 연어 | 125,000 | 13 | 해나(海蘿) | 가사리 | 80,000 | 20 |
| 점(鮎) | 은구어 | | | 석화채(石花菜) | 우뭇가사리 | | |
| 만(鰻) | 뱀장어 | | | 混布 | 다시마 | 40,000 | 29 |

자료 : 「한국수산지」, 권1, pp.199~325. 발췌

표 3. 충남 서해안 해역의 주요 어류별 어업실태

| 어류 | 주어장 | 어기 | 어업실태 |
|-----|--|--|------------------------------------|
| 도미 | 죽도, 연도, 보령만내, 용도, 녹도, 호도 서쪽, 외연도 주변(죽도어장) | 봄: 5월초부터 40여일, 가을: 8, 9, 10월 | 연승, 안간망 |
| 삼치 | 전라도 위도-녹도 사이 | 음력 1월~늦가을 성어기(5월) | 유망중심, 어전, 설망, 예망 |
| 가오리 | 어청도 서쪽 중심 | 백분(1-3월) 적분(6-7월) | 연승중심, 공조 |
| 조기 | 칠산탄-충남연해의 금강구, 보령만, 천수만내외, 태안반도, 백사수도 | 4-5월 6월말-8월 | 중선 중심, 자망, 일본조, 주목망, 전(일본인-안강망) |
| 갈치 | 전연안(죽도, 연도근해, 외연열도, 녹도, 호도) | 4-10월(성어기 6-7월) | 주목망, 중선, 일본조, 연승, 어전(일본인-안강망) |
| 상어 | 어청도, 외연열도, 녹도, 호도근해-가의도해역 | 연안 : 8-9월 근해 : 11-12월 | 연승 |
| 농어 | 금강구 중심, 남포만, 보령만, 오천오, 안면도 부근, 백사수도 | 금강구(7-8월), 백사수도(8-10월), 외연열도(7-10월), 남포만(봄말-여름) | 연승, 지에, 일본조, 어전, 주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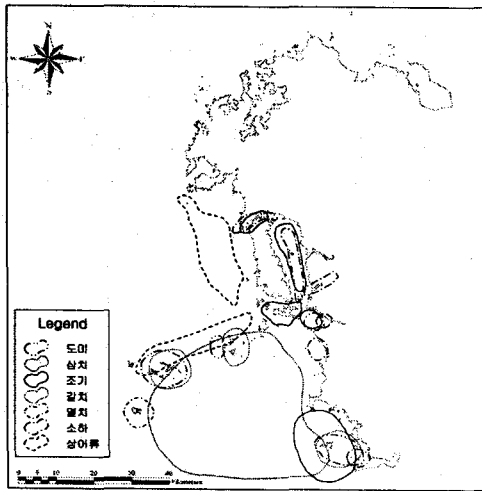


그림 2. 충남해안의 주요 어류별 어장

2) 제염업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충남 연안의 식염 생산지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의 당진군, 태안군, 보령시의 연안지역으로서 염전의 총면적은 약 19,575아르, 연간 제염량은 대략 859만 2천근이었다. 이들 지역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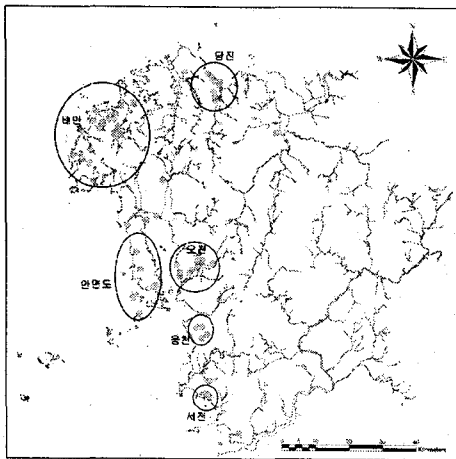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수산지에 나타난 충남 제염지역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에 위치한 가정리는 당시 제염업을 행하였으나 연료의 부족으로 휴업 중이었으며, 오늘날 비인면 선도리에 해당하는 선서리, 선동리, 고도리 일대는 제염업이 매우 성하였다. 선서리에는 염업을 하는 곳이 5조 있었으며, 1조 당 소유한 염전 면적은 약 8두락4)으로 총 40 두락이 있어 부근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하였다. 제염계절은 봄, 가을 두 계절인데 봄은 2월~5월까지, 가을은 9월~11월 까지였지만 당시 연료의 부족으로 연료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1회 제염 기간은 가마의 청소, 모액(母液)의 채취 등을 포함하여 약 20일 간이 소요되었다. 1년 생산고는 염부(鹽釜) 하나에 50俵 즉 35석 정도였다.

남포군과 비인군의 경계지역인 베가만 만내의 장포 및 동화 부근에도 염전이 있어 소금을 생산하였고, 또한 남포군 독산리 배후 북동쪽의 만안쪽에 위치한 진장, 양림 등의 연안에서도 제염을 행하였다. 오늘날 남포방조제 안쪽의 갑암포(남포만) 만의 만내 각처에는 제염처가 산재하였는데, 만내의 소달리와 의항리, 만의 북안에 위치한 제석동, 삼현리 등지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염업을 겸하였다. 또한 오늘날 보령시 앞바다에 해당하는 보령포만 연안 각지에 염전이 있어 생산액이 많았다.

오천군 사장포구와 오천오의 각 만입 지역은 모두 간석지 내에 염전이 있었다. 오천오 연안은 염업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만내에 있는 염전은 만의 북측에 많아서 오늘날의 보령시 천북면 지역의 연안 각지가 제염의 중심지였다. 오늘날 천북면 연안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서 염전입지의 적지가 많았고, 주변 산지에서의 연료의 공급이 원활하였다. 대표적 염업지를 열거하면, 남창, 구창, 언내, 본궁, 금과, 숙구지, 동음, 두만,

선석, 하궁, 왕성, 울도, 열포, 수문, 추지, 염성, 사포 등지로 1년의 제염고는 약 13만근에 달하였다.

천수만 지역은 사장포(간월호) 안쪽 북서측에 위치한 서산시 인정면 동막리 부근에 염전이 있어 농업을 주로하면서 농한기에 제염에 종사하였다. 또한 적돌강(부남호) 북쪽 및 태안읍의 남쪽에 해당하는 연안에도 제염처가 산재해 있었다. 안면도는 과거 제염처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중장리, 고장리, 창기리, 승언리, 황도리, 간월리 등은 어업보다 제염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창기리의 백사수도 서쪽 입구의 '백사장'은 그 전면에 사구가 발달해 있어 외해의 파랑을 막아주고, 사구의 남쪽은 만입을 이루어서 그 안에 염전이 있었다. 이밖에 승언리(일명 장문리)와 중장리의 동쪽 천수만에 접한 연안에도 염전이 많았으며, 고장리, 의점리, 황도리, 간월리 등도 당시 제염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태안군은 긴 연안의 간석지 도처에서 제염업이 발달하였다. 이들은 모두 입빈식(入濱式)으로, 3~4월, 8~11월 소조시에 주로 제염을 행하였으며 생산된 소금은 멀리 강경, 은진, 인천, 개성 등지에 판매되었다. 태안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안염이라 불리고, 나주염과 함께 그 이름이 유명하였다. 생산지역은 안흥만의 남측 동편에 위치한 고장리 부근에 염전이 3개소 있었는데, 모두 다른 마을 사람 소유여서 이것을 임대하여 제염하는 이도 있었다. 원일면(소원면)의 남과 북 양측 만내에는 염전의 적지가 많았다. 그 중 모항리는 염업이 발달하여 염전 6개소가 있었고, 기타 등대리, 소대산리, 송현리, 중방리 등 네 마을에서도 제염을 하였다. 소근면(소원면) 의항리에도 염전 3개소가 있었으며, 북이면(원북면)의 방축리, 향촌리, 연곡, 송곡, 정포 등의 연안에도 염전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북이면(원북면과 이원면 지역)의 사중, 웅점, 마산, 하리, 중리, 장작, 골포, 외포, 내포, 추창, 태포, 청산 등은 대개 해안에 산재하는 마을 곳곳에도 염전이 있었다. 이원면 청산리에 염전 2개소, 외동리에 염전 4개소가 있어 소금을 생산하였으며, 가로림만의 고파도에도 염전 4개소가 있어 제염업이 조금 행해졌다.

아산만 지역은 당진군 연안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얕아 간석지가 널리 분포하여 연안의 도처에 염전 개척의 적지가 많았다. 내맹면(석문면) 초락도에는 제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외맹면(석문면) 연해의 송동, 찬동, 유태, 삼꽃리, 외창리, 통정 등지에 각각 염전 1~2개소가 있었다. 독고천(당진천) 하구의 연해지역인 하대면(고대면)의 사암리, 선동, 주동, 하룡, 상룡 등지에서도 염업이 성하여 주민 생활이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면천군 이서면(우강면)의 부리포 연안에도 염전이 있었다.

충남 도서지역 중에서는 장고도와 삼시도에서 제염을 행하였다. 장고도의 염업은 섬의 중앙 마을 부근에 있었으며, 그 면적은 약 6,000평 가량, 철제 가마 2개가 있어 자오염을 제조하였다. 염부는 큰 것이 한번의 길이가 2간(1간은 6자로 1.8181m)인 사각형 가마로 깊이는 약 9cm 정도였고, 당시 연료의 부족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제염량은 1개월에 가마당 50~60표(1표는 약 7두)로 가마 2개에서 100~120표가 제염되었다. 삼시도는 제염을 행하는 염전이 3개소가 있었는데, 섬의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연료를 외지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어 염업의 경영에는 편리한 편이었다.

이상과 같이 충남 연해지역의 1910년경의 제염실태를 고찰한 결과, 당시의 제염은 모두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자오염이었고, 소금의 주 생산

지역은 태안군지역, 당진군지역, 보령시의 오천만을 중심으로 한 연안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소금 생산이 많았던 이유는 긴 해안선을 끼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 염전의 적지가 많았으며, 주변에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여 연료의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지의 비율이 비교적 적어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염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충남의 연해 지역에 천일염의 생산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제염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4. 1910년경 충남 지역의 어촌과 수산업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산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금강 유역 및 연안 각 지역의 어촌 및 수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당시 어촌의 분포 특징과 어촌민들에 의해 행하여진 수산업의 실태를 7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어촌들의 위치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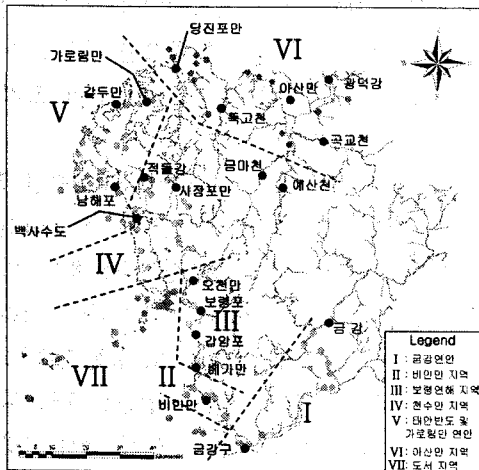


그림 4. 충남 각 지역별 어촌위치도

1) 금강 연안(그림 I 지역)의 어촌과 수산업

『한국수산지』에 금강 연안에 위치한 마을은 32곳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그중 부여군의 호암리, 규암리, 돌리포, 석성군의 봉두정리, 로하리, 임천군의 반호리, 회화정리, 가양리, 한산군의 신아포, 망월, 서천군의 용당, 장암리 등이 비교적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상류지역에서는 송어, 잉어, 잉어, 붕어, 메기, 모래무지 등의 민물고기를 투망, 예망, 저류망, 유망 및 소형 어선을 사용하여 어획하였으며, 어획된 물고기는 은산장, 강경장, 임천장 등지에서 판매되었다. 밀물 시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임천군의 남부 및 한산군, 서천군의 금강 연안은 수심도 깊어지고 고기도 많아 규모가 큰 수산업이 행하여졌다. 금강하구는 뱀어의 중심어장이었고, 특히 신아포는 뱀어의 중심어항으로서 여기서 2~3월에는 다른 지역의 어부들까지 와서 중선과 같은 구조의 어구인 범석을 사용하여 어획하였다. 기타 금강하구에서는 조기, 갈치, 송어, 가오리, 준치, 뱀장어 등이 어획되었고, 주변 갯벌에서는 굴, 백합 등의 패류가 채취되었다.

2) 비인만지역(그림 II)의 어촌과 수산업

『한국수산지』에 의하면, 비인만 지역은 금강 구에서 서천군의 해안을 따라 마량반도까지의 해안가로 약 23곳의 어촌이 언급되고 있다. 이중 중요한 어촌은 서천군의 와석리, 로하리, 비인군의 고도리, 선서리, 월하포, 도둔포, 마량리 등지였다. 주 어획어종은 조기, 갈치, 도미, 송어, 가오리, 상어류, 멸치, 새우, 가자미, 복어, 넙치, 민어, 농어, 낙지 등이었다.

본 지역은 각종 어종이 풍부하여 충남 연해 지역의 중심 어장 중의 하나였다. 특히 와석리, 도

둔포, 마량리 포구의 어민들은 연도, 죽도, 개야도 등의 서천군 인근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칠산탄, 황해도의 연평도, 평안도의 대화도 부근에 까지 진출하여 조기 등을 어획하였다.

3) 보령연해 지역(그림III)의 어촌과 수산업

마량반도 북쪽 배가만 지역에서 오늘날의 보령 지역의 연안을 따라 갑암포, 보령포, 오천만에 이르는 해역에는 33곳의 어촌이 『한국수산지』에 언급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만입부를 따라 제염업이 성하여 어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연안 어업은 석방령을 비롯한 어전어업이 중심이었고, 만 지역의 간석지를 중심으로 패류를 채취하였다.

그물과 어선을 이용한 어업은 남부의 독산리와 오늘날 대천항에 해당하는 군입리 및 오천만 입구의 송도 정도였다. 독산리의 당시 호수는 약 30호였는데 다수의 어민들이 조기, 민어, 도미, 준치 등을 연승어업을 통하여 어획하였는데, 인근 해역 뿐만 아니라 죽도, 어청도, 경기도의 인천부근 해역에 까지 진출하였다. 군입리의 20호의 거주민 다수도 칠산탄, 연평도, 평안도 연해에 까지 진출하여 연승어업을 행하였다. 15호가 거주한 송도의 어부들도 어전과 연승을 이용하여 도미, 민어, 조기, 가오리, 송어 등을 어획하였다.

4) 천수만 지역(그림IV) 어촌과 수산업

천수만을 중심으로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 지역의 연안에는 모두 28곳의 어촌이 『한국수산지』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근의 갯벌에서 패류 등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소금을 굽고 마을 부근에 어전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어업을 행하였다.

일부 어촌에서는 주로 농업을 행하면서 어업 또는 제염업을 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어촌은 서창리, 생천리, 봉산리, 사기소리, 동막리, 창촌리, 갈마리, 대두리, 노라포, 사기점리, 당상리, 창기리, 승언리, 중장리 등 대부분이 천수만의 넓은 갯벌을 끼고 입지한 어촌들이었다. 주 어획어종은 조기, 갈치, 송어, 복어, 멸치, 뱀어, 도미, 민어, 가오리, 오징어, 농어 등 당시 서해해역에서 어획되는 거의 전 어종을 포함하고 있다. 어선을 이용하여 연근해로 출어하는 어촌은 성호리, 남당리, 어사리, 창기리의 백사장 정도의 포구였다. 성호리의 어부들은 녹도 근해로, 어사리의 어부들은 어청도, 연도, 죽도 및 전라도의 칠산탄 해역으로 진출하여 조기, 가오리, 도미, 민어 등의 연승어업을 주로 하였다.

5) 태안반도 및 가로림만 연안(그림V)의 어촌과 수산업

백사수도의 서쪽 입구로부터 안흥반도를 지나 가로림만에 이르는 오늘날 태안군의 전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많은 반도와 만들로 구성되어 있고 연해지역에는 크고 작은 어촌들이 많이 발달하여 있다. 태안군은 고래로 어염의 이익이 가장 큰 지역이었고, 수산물 중 중요한 것은 도미, 가오리, 상어, 농어, 갈치, 민어, 방어, 송어, 조기, 가오리, 식염 등이었다.

포구별 어선의 현황을 보면 거은리(연승선 7척), 웅도리(연승선), 거야도(소선3척), 성내리(안흥항, 연승선 7척), 신진도(일본형연승선 8척), 마도(연승선 1척), 가의도(일본조어선 5척), 죽림리(일본조어선), 정산리(연승선 2척, 일본조 3척), 의항리(일본조어선 3척), 갈두리(연승선 3척, 일본조어선 3척) 등이다. 이들 포구 중 당시 가장 수산업이 발달한 곳은 신은리, 성내리, 갈두리와

신진도, 가의도, 마도 등의 섬지역이다. 거은리의 어민들은 호도, 외연도, 어청도, 녹도, 나치도 등지로 진출하여 도미, 민어, 농어, 가오리, 상어류 등을 어획하였다. 성내리와 성동리에는 당시 어선 7척이 있었다. 가오리연승은 안흥의 주요 어법이었는데,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어청도 근해로부터 용도등대 서쪽 및 궁시도 근해에 이르는 지역에서, 도미연승은 4~5월경 죽도, 연도 근해에서, 상어연승은 7월~10월까지 남쪽 외연열도 근해로부터 서쪽 흑도, 궁시도 근해에 이르는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일본조는 조기, 갈치, 농어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해에서 조업하였는데, 농어의 어장으로 이름난 곳은 백사수도 및 거울도 이북의 장안퇴 등지였다.

도서지역 중 가장 어업이 발달한 곳은 안흥의 건너에 있는 신진도였다. 인가는 23호에 약 90명이었는데, 모두 어업을 생업으로 종사하여 태안군 제1의 어업발달지역이었다. 어업은 주로 연승을 행하였고 일본형연승어선 8척이 있었다. 어획고는 부근의 어촌에 비해 많았으며, 주 어획물은 도미, 가오리 등이었다. 신진도의 서쪽에 위치한 마도는 인가 5호의 전주민이 어업을 생업으로 하였다. 당시 태안 지역 어민들이 주로 출어한 지역은 백사수도, 가의도, 장안퇴, 죽도, 연도, 어청도, 녹도, 호도, 외연열도, 대봉도, 덕적도 등지의 연근해 해역을 총망라하고 있었다.

6) 아산만 지역(그림Ⅵ)의 어촌과 수산업

당시 아산만의 지역의 연안을 「한국수산지」에서 살펴보면, 크고 작은 연해의 촌락이 약 55곳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본 지역은 농업을 주로 행하였기 때문에 염업이나 연해의 간석지를 중심으로 어전어업이 발달하는 정도였다.

본 지역에서 어획된 해산물로는 송어, 조기, 농

어, 멸치, 가자미, 대합 등 패류, 게, 새우 등이었다. 연안의 각처는 지형상 어전의 적지여서 어전어업은 비교적 많이 행하였다. 어선과 그물을 구비하고 어업을 행한 곳은 상원덕(소주망, 일본조), 교로리(설망, 수조망, 일본조), 대란지도·소란지도(각 어선 2척, 수조망, 일본조) 등지와 성구리, 내도리, 한진리 등의 포구에서 궁선을 이용한 새우잡이 조업 및 준치 유자망 어업이 행해지는 정도였다. 기타 삼포천이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유역에서는 궁선을 이용한 새우, 송어 잡이 등이 행하여 졌다.

7) 도서지역(그림Ⅶ)의 어촌과 수산업

충남 서해의 도서 지역에는 많은 어촌이 분포하였으며, 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어선들에 의하여 수산업이 활발하게 행하여 졌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도서지역은 당시 오천군에 속했던 지역의 도서들로 어업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면도의 남쪽 지역은 당시 충남연해 지역 중 주목망 어업이 가장 발달한 해역이었다. 주목망의 설치 지역은 원산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삼시도, 불모도, 녹도, 호도 와 안면도와 원산도 사이의 고대도, 육도, 소도, 추도, 육도 등의 해역이다. 주 어종은 조기 갈치, 도미, 민어, 농어, 밴댕이 및 기타 어종을 어획하였다.

둘째, 금강구의 개야도, 죽도, 연도 근해의 어장은 소위 '죽도어장'의 일부에 편입되는 도미의 중심어장이었다. 본 지역은 죽도를 중심으로 남쪽은 전라도의 고군산군도 근해까지, 서쪽으로는 어청도와 외연열도 근해까지, 북으로는 녹도, 호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등의 근해까지를 말한다. 본 해역은 충남지역 최대의 도미, 삼치, 조기, 갈치 어장으로 일본인 어선들이 가장 많이 몰

려드는 해역이었다. 따라서 봄, 가을의 어기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어선과 일본인 어선 및 출매선으로 이 지역 도서들은 만원을 이루었다.

셋째, 도서지역 중 당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던 곳은 원산도의 진촌(어호 20, 선승업 35호), 효자도(45호), 연도(30호), 개야도(96호), 고대도(41호), 삼시도(29호), 녹도(80호), 호도(32호), 외연도(30호), 어청도(65호) 등지였고 일본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진출하여 충남 연근해 어장의 전초기지로 개발한 곳은 어청도였다.

5. 결론 및 제언

현재 충남 서해안 지역은 1910년도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충남 해안은 만입지를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추진되어 방조제 및 하구둑이 건설되었고, 해안지역이 매립되어 경지, 도로, 공업단지로 용도 변경되었다. 오늘날 어촌이 입지한 모든 마을은 자동차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수산업이 일찍부터 중요한 국민적 전통산업의 하나가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산지’를 통하여 1910년경 충남 연안의 수산업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수산업에 관한 경제 및 역사지리학적 고찰은 당시의 수산업 현황과 발전상태 등을 파악하여 서해안 수산업 발전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충남 서해안의 수산업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10년 무렵 충청도 서해안의 수운 특징과 입지유형을 분석한 결과 충남의 전체 포구는

30개이며, 입지유형별로 나누면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입지유형 I은 중·소하천변에 위치하고, 감조구간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포구는 논산, 길산, 해창, 돈곶리, 부리포와 둔포 등이다. 특히 논산은 충남 제1의 큰 장을 형성하였으며, 쌀을 중심으로 한 집산물의 절반 이상이 논산천과 금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균산항으로 반출되었다. 입지유형 II는 금강분류 연안의 포구들로서, 부강, 규암, 강경, 입포, 용당, 장암 등이다. 특히 강경은 금강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집산지로 금강수운의 중심지였다. 입지유형 III은 연안에서 외해에 접하고 있는 포구로 안홍항이 대표적이다. 입지유형 IV는 만내에 입지하는 포구들로서 대표적인 포구는 대천리, 수영, 웅암리, 성호리, 창촌리, 가로림만의 고파도, 웅도리, 북창, 상창, 하창, 한진리, 백석포 등이다. 마지막으로 입지유형 V는 연안의 도서지역의 포구들로 원산도, 고대도, 장고도 및 기타 어청도와 녹도 등이 해당된다.

둘째, 충남 해안의 어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연해에서 어획된 어종은 도미, 삼치, 가오리, 조기, 갈치, 새우 등이며, 도미어업 근거지는 죽도 및 연도였으며, 삼치어장은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 어획이 이루어졌고, 가오리는 한국인 어부들이 많이 잡았다. 조기어장은 전라도 칠산탄에서 충남연해 일대에 형성되었다. 기타 충남해역에서는 갈치, 복어, 준치, 달강어, 민어, 흑도미, 가자미, 넙치, 참서대, 송어, 멸치, 공치, 칠성장어, 뱀장어, 방어, 뱀망이, 낙지, 오징어, 해삼, 작은새우, 뱀어 등의 어획되었다. 체염업은 서천만, 웅천만, 오천, 안면도, 태안, 당진지역 등의 만입부 지역에서 행하였으며, 특히 태안군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은 생산량이나 규모면에서 가장 많아 태안염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하였다.

셋째, 충남지역 어촌의 분포 실태와 수산업 현황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금강 연안에는 어촌이 32곳이 언급되어 졌으며, 하류지역인 금강구는 뱀어의 중심어장이었다. 특히 신아포는 뱀어의 중심어장이었다. 비인만 지역은 23곳의 어촌이 있었는데, 주 어종은 조기, 갈치, 도미, 숭어, 가오리, 상어류, 멸치, 새우, 가자미, 복어, 넙치, 민어, 농어, 낙지 등이었다. 보령지역은 갑암포, 보령포, 오천만에 이르는 해역에 33곳의 어촌이 입지하고 있었지만, 만입부를 따라 제염업이 성하여 어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연안 어업은 석방령을 비롯한 어전어업이 중심이었으며, 주 어종은 조기, 민어, 도미, 준치 등이다.

천수만 지역은 28곳의 어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근의 갯벌에서 패류 등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소금을 굽고 마을 부근에 어전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어업을 행하였다. 태안반도 및 가로림만 연안에는 약 70여 곳의 어촌이 있었으며, 어염의 이익이 가장 큰 지역이었다. 주요 수산물은 도미, 가오리, 상어, 농어, 갈치, 조기, 식염 등이다. 아산만 지역의 연안에는 크고 작은 어촌 55곳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어촌지역이 농업을 주로 행하였기 때문에 염업이나 연해의 간석지를 중심으로 어전어업 정도가 발달한 정도이다. 어획된 해산물은 숭어, 조기, 농어, 멸치, 가자미, 대합 등 패류, 게, 새우 등이다.

이밖에 충남 서해의 도서 지역에는 많은 어촌이 분포 하였고, 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어선들에 의하여 수산업이 활발하게 행하여 졌다. 특히 안면도 남쪽 지역은 당시 충남연해 지역 중 주목망 어업이 가장 발달한 해역이었고, 주로 조기 갈치, 도미, 민어, 농어, 뱀망이 및 기타 어종을 어획하였다. 또한 금강구

의 개야도, 죽도, 연도 근해의 어장은 소위 ‘죽도 어장’의 일부에 편입되는 도미의 중심어장이었다. 이밖에 본 해역은 삼치, 조기, 갈치 등을 주로 어획하였고, 연승, 일본조, 류망, 안강망 등을 행하는 일본인 어선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해역이었다.

주

- 1) 농상공부수산국에서 편찬한 「한국수산지」는 총 4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1908)은 우리나라 연안 및 수산업 전반에 대한 총서이며, 제2(1910), 제3(1910), 제4권(1911)은 도 및 군단위의 행정구역별로 세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중 충남지역은 전라남·북도과 함께 제3권에 기술되어 있다.
- 2) 미내천은 태안읍의 백화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삭선리의 해창을 거쳐 가로림만으로 들어간다
- 3) 1푼은 1발이라고도 하며 ‘두팔을 벌린 길이’로 약 180cm이나 물이 깊이를 나타낼 때는 대략 150~180cm 정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4) 보통 마지기라고도 한다.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인데, 평지와 산지 또는 토지의 비옥도 등에 따라서 그 면적이 다르다. 보통 논은 200평, 밭은 300평을 한 두락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염전 하나를 지칭하며 그 넓이는 대략 200~300평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충청남도편, 1912, 조선총독부, pp.162-284.
- 김신웅, 1978, “우리나라의 수산업발달사(상),” 경영경제총론 4, pp.83-97.
- 김일기, 198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서울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도양, 1969, "15세기 조선의 수산업," 지리학 4, 대한 지리학회.
- 농상공부수산업국, 1908, 한국수산지 1.
- 농상공부수산업국, 1910a, 한국수산지 2.
- 농상공부수산업국, 1910b, 한국수산지 3.
- 농상공부수산업국, 1911, 한국수산지 4.
- 박구병, 1975, 한국어업사, 정음사.
-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6, 越智 唯七編, 中央市場.
- 서찬기·박태화, 1984, "장기반도 연안어촌의 지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논문집 26, pp.49-75.
- 최영준·김부성·서태열, 1996, "천수만지역의 어업환경과 어촌," 성곡논총 27(2), pp. 891-990.
- 최태호, 1995, "일제의 식민지수산업정책과 한국수산업," 국민경제연구 18, pp.5-39.
- 한인수, 1997, "한말의 연평도 근해의 조기어업소고," 지리학연구 3, 한국지리교육학회.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8, No. 1, 2005(153-169)

The Economic-Geographical Consideration of Fisheries of the West Coast Area, Chungnam in the 1910s in 「Hangooksusanji」

Chang-Yon Jo*, Hag-Tai Kim**

**Professor, Dep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ccy@kongju.ac.kr)*

***Teacher, Cheongyang Girls' Information High School
(hagtaik@hanmail.net)*

Abstract : In this study, we analysed the state of the fisheries in Chungnam around 1910 from Hangook Susanji. As a result, there were about 30 ports in the west coast area in Chungnam, and we can classify their locations into 5 types. Type I is located in small and mid sized rivers. Type II is located in a costal port. Type III is ports facing the open sea, and type IV is ports in a bay. Type V is ports on islands of coast. Species of fish are porges, mackerels, sting rays, croakers, hairtails, shrimps, etc. The base of fishing porge was Jukdo and Yeondo. The fishing banks of croakers are formed from Chilsantan, Jeonlado to the area of seashore, Chungnam. Hairtails were caught near all the areas of seashore. Salt manufacturing is done near all coasts of Chungnam, Seocheon-bay, Ungcheon-bay, Ocheon-bay, Anmyeon island, Taean, Dangjin area, etc represent this work. Especially, the salt which was produced in Taean was so famous that it was called "Taeansalt". In the Kum-river area, there were 32 fishing villages. Freshwater fish were caught in the upper stream area and the mouth of Geumgang, down stream, was the center for producing Baengeo. There were 23 fishing villages, and the species consisted of croaker, hairtail, porge, gray mullet, sting ray, sharks, anchovy, shrimps, etc in Biin-bay. The coast of Boryeong had about 33 fishing villages, but their fishing industry was not developed more than their good salt manufacturing. Though there are records that Chunsu-bay had 28 fishing villages, Taean peninsula and Garolim-bay had about 70 fishing villages, and Asan-bay area had about 55 fishing villages, they were developed a little, but not more than Weir fisheries or salt manufacture on the base of salt area and the tideland because these areas were just for farming. South of Anmyeon island of West coast island areas is the biggest area of Stow nets on stakes fishing and the island areas down mouth of Kum river were centers for producing porge.

Key Words: Hangooksusanji, port, the type of location, salt manufacturing, fishing bank, fisheries